

정도, 투명, 나눔 경영 아래 성장 거듭 최고의 품질로 고객 요구 부흥



한 용 석

(주)원지앤피 대표이사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술력을 중심으로 핵심역량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뚜렷한 목표로 직원들의 입장에 서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금상첨화 일터.

포장업계에도 작지만 알찬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정도경영, 투명경영, 나눔경영이란 목표 아래 작지만 알차고 모범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건실한 업체가 있다.

모기업(母企業)인 (주)원지산업에서 분사하여 지난 2003년 설립된 (주)원지앤피(대표이사 한용석)가 바로 그 주인공.

(주)원지앤피는 레토르트, 진공, 각종 특수 포장재를



▲ (주)원지앤피 생산제품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주)원지산업

전문으로 제조하는 회사로 다 변화하는 시장 추세에 맞춰 최고의 품질과 다양한 신제품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할 뿐 아니라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통해 보다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근 산업 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원지산업은 매년 10% 이상의 매출 신장과 함께 올해 100억을 목표로 임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열정을 쏟고 있다.

특히 원지산업은 직원 30여명의 대다수가 10여년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로서 전문적이고 가족같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큰 강점이

있다.

한용석 사장은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직원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 현재 상여금 600%에 학자금 지원, 금연수당, 교통비, 통신비를 지원할 뿐 아니라 최적의 기숙사가 완비되어 있으며, 각종 자격증 수당 및 경조금을 지급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처 후 개선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있다.

처음 (주)원지산업에서 영업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원지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최 일선으로 영업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사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직원들의 노고를 헤아릴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

“포장인생 27년차로 현재 원지산업 대표로서 여러 가지로 부족 하지만 존경받는 진정한 직원들의 대표로서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대표로 거듭 나기위해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과 나눔을 약속한 사항들을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지산업에서 분사하여 올해 7년차를 맞고 있는 원지산업은 해외 수출을 비롯한 100여개 매출 거래선 역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20여년간 탄탄한 신뢰의 탑을 쌓으며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영세기업들의 난립과 그로 인한 과당경쟁 등 제살 깎기

WONJI G&P

식의 출혈 경쟁으로 연포장 업계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한 사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거래의 3대 조건인 품질, 가격, 납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원지엔피는 식품포장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준식품 업체라는 사명감과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 및 관리로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품업체에 오

랜 숙제이기도 한 커링방지용 필름과 기능성필름의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기존에 수입에 의존해 오던 멀티 BOTTOM 필름 및 TOP 필름을 국내 기술로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국내 시장 선점 확충은 물론 수입 대체 효과를 크게 보고 있으며, 기존 잔류용제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정도경영, 투명경영, 나눔경영을 바탕으로 원지엔피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한용석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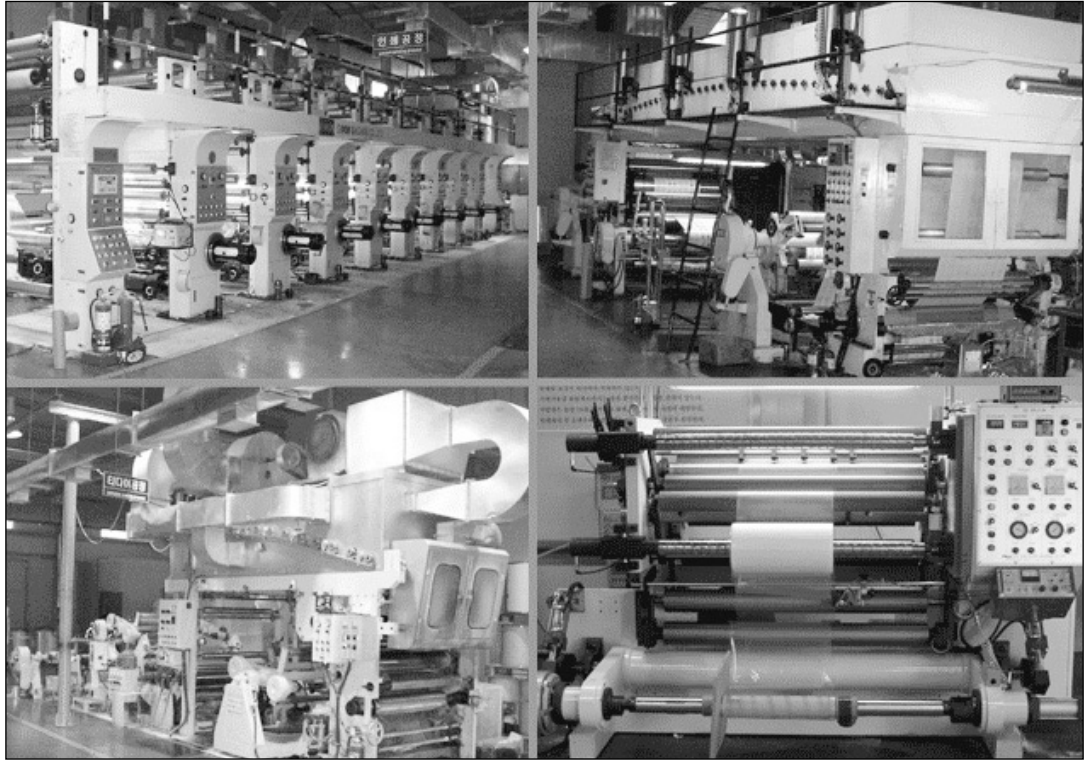
그는 “연포장 업계가 좀 더 활성화 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지려면 많은 후학들이 있어야할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현재 어려운 구직에 실업 인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포장을 배우려는 사람은 날로 적어지고 있고 또 다른 산업 현장에선 일할 사람이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가지 경제 여건이 힘들고 어렵다고들 합니다. 세상은 넓고 시장도 큼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창의적 도전 정신이 요구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계와 미래를 위해 도전해 나갈 때 성공의 문은 활짝 열린다는 한용석 사장은 젊은 원지엔피를 위해 오늘도 일선에서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고 있다.



▲ (주)원지엔피의 생산제품



▲ (주)원지지앤피의 설비현황



▲ (주)원지지앤피의 생산제품

회사가 성장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개인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고 직원들에 대한 정당한 혜택이 필요하며 뛰어난 리더십이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조건이 부합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주)원지지앤피는 그래서 미래가 더욱 밝다. ☐

이한얼 기자